

열린 마당

깨달음의 사회화

끊임없는 자기정화가 첫걸음

사설

종교의 영역은 삶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초월한다. 사회과학은 이에 비하여 현재 존재하는 것에 집착하고, 경험적,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원소들의 집합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중생에게 법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내시느라 고통하셨다는 사실은 경계에 물든 중생의 집착이 보편적임을 의미한다. 유행의 방편을 써서 유 무한을 초월한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나 중생의 제도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종교이며, 깨달음의 실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여전히 깨달음을 사회화하는 문제가 남으며, 이를 사회에 환원하여 적용하면, 사회과학의 이론과 실천의 상호관계에 직결된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 온 수많은 부처님 가운데서 중생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만을 즐긴 경우를 우리는 듣지 못하였다. 부처님은 중생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하고 중생을 위하여 인욕하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깨달음을 얻은 순간 바로 그 사회화의 과제가 놓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의 올바른 실천은 불교의 교리가 이세상에서 규범으로 정착되게 하는 데에 그 일차적 목표가 있다. 불교의 규범은 간단하게 5계로 요약되고 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

질 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깨달음의 사회화가 곧 모든 중생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끊임없이 자정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다른 종교에 비하여 불교가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에만 해도 최근 도심의 포교원이 제법 수를 늘려가고 있으나 혼인, 교육, 장애, 저소득 등 우리들의 중요한 행위에 불교는 멀리 떨어져 있다. 불교신자가 타종교재단의 병원·영양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체계적으로 신도들의 집단 일을 행거울 수 있는 절이 몇군데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점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는 사회의 불교화와 궁극적인 순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의 사회화가 궁극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불교계의 지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승가의 현대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최근 신도들 사이에서 불교기나 새를 살려보내는 방식 대신 어려운 이웃이나 환경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지식이 성숙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사회화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회이념이나 사상에 종교가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때 종교는 어떤 이라는 사상이 흥미한 적이 있었으나, 불교이념으로 어떤 불교 중생에게 올바른 각성을 촉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사부대중의 목소리

불자들이 출선수범 보여야 가능



시현

종정스님께서는 신년법어에서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진리의 몸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받들어 날로 함께해져 가는 시민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하나됨'을 지향하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일회성 또는 어느 한 종단만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범불교의 범국민 자각운동으로 확대 실천해 나가도록 우리 불자들이 출선수범해야 한다.

자연과 하나되고 세계가 하나임을 깨달아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공동체 실현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의 자각과 중생구제에 대한 철저한 원력과 실천으로서만이 가능하다. <조계종 문화사회부집>

21세기 정신운동의 출발점 폐야



재범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앞두고 세계는 벌써부터 새로운 세계질서의 개편을 예측하고 자기 시스템의 치열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국가, 기업, 각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빠른 속도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 위하여 철저한 자기 준비와 혁신의 불부림으로 각자 심혈을 쏟고 있다. 이같은 시대변화의 기점에서 불교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도 각 단위원이 사회구제 활동의 기능적 실천으로부터 보다 종합적이고 보편적 21세기 새로운 시민정신운동으로 확대 실천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글종교 또한 다종교의 실존 상황속에서 21세기 주도로 종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 21세기를 맞이하는 불교의 종교적 준비운동의 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월간 '불령의 어린이' 주간>

공동체 사랑 사회구석까지 비치길

조계종 총무원장의 목표가운데 '깨달음의 사회화'는 종단개혁의 결과로 모든 사회구석까지 빛을 던질 폭넓은 운동으로 기대된다.

는 사회, 새로운 사회적 모습과 고통이 문제인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 사회의 주체로서 문제를 바르게 보여 주면 시민의 깨달음은 가장 확실한 운동의 힘이 될 것이다. <경북연 정책위원>

왜, 중생 구제의 첫째 서원을 세심스럽게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강조해야 하는가. 생명마저 조작 가능한 후기산업사회의 인화를 만들어 사는 세계의 급변이 우리 삶의 공동체 의식은 파편화하여, 이익과 경쟁이 지배하

는 사회, 새로운 사회적 모습과 고통이 문제인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 사회의 주체로서 문제를 바르게 보여 주면 시민의 깨달음은 가장 확실한 운동의 힘이 될 것이다. <경북연 정책위원>

걸치레·구호보다 발원이 더중요

한국 불교의 큰 맥을 이루고 있는 대승(大乘) 정신은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 구현의 기본이 될 것이다.

성은 복잡한 현대인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다. 깨달음의 사회화, 이는 불국정토 실현의 첫 발걸음인 만큼 행사나 의식에 치우치지 보다 정신적인 각성과 발원이 더 중요할 것이다.

깨달음이란 진리의 본체를 확연하게 알아내는 것에서 비롯해서 그 본체를 미혹한 중생들에게까지 보여 주는 행위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깨달음의 사회화란 단연히 이뤄져야 할 수행의 본바탕이고 신행의 근원일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승적 회향의 담원

우리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출범했다. 무한경쟁시대·소유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세계화에 앞장서 멀티미디어 슈퍼하이웨이 등 기술혁신과 시장적응 등 경영혁신으로 고도성장국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기를 마련, 국부를 무한 늘려야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는 세계거대자본에 의한 국가주권의 제약이 가능한 체제라는 점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자율성, 경쟁성, 신의성, 민족자주성, 문화 정체성 등 <대전대 국문과 교수>

시론

'世界一花'와 세계화

올해 올해는 「세계화」를 화두로 삼아왔다.

김영삼대통령이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선언하고 올해를 세계화 원년이라 하면서 이 화두 참구는 시작되었다 하겠다.

전자공학등 정보통신 기술혁명은 지구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혀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됐으며 세계화는 이 시대의 정표가 되었다. 그런데 무한경쟁의 세계화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민이 공감하는 세계화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것, 세계화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상식이 통하는 민족자주사회 형성' 등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분야 등에서 세계화를 추진해 온 국제기구 등 세계적 거대자본이 하나의 세계시장을 무대로 자유자본 축적운동을 벌여온 점으로 보아, 이 세계화가 또 하나의 불신승배로 가기 때문에, 주민정신의 입장에서 불교의 세계일화(世界一花)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세계화란 화두를 위해 잠깐 옛일을 돌아보기로 하자.

중국 6조 해부대사가 한 때 사찰의 마당에 있었다. 그때 두 제자가 마당에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한 제자는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라 했으며, 다른 제자는 '깃발'이라고 하여 서로 다투었다. 이를 보고 해부대사는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깃발도 아닌(非風非幡) 마음"이라고 갈파한 것처럼, 진정한 세계화는 그 근본을 구호나 불신승배가 아닌 세계일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바람이나 깃발이나

세계화의 개념이 처음엔 국제화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점도 애매하여 정부의 즉흥성이 언론에 의해 과장되기도 했다.

여기서 세계화가 국경이 없고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 있는 세계화'라면,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가 주역으로서 일류세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국 중심의 평화세계 즉, 파스 코리아나(PAX KOREANA)다. 올해를 고비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연간 수출 1천억달러 시대에 들어간다.

올해는 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7년에 걸친 우르파이 라운드협상 결과 자유공정 무역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우리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출범했다.

무한경쟁시대·소유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세계화에 앞장서 멀티미디어 슈퍼하이웨이 등 기술혁신과 시장적응 등 경영혁신으로 고도성장국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기를 마련, 국부를 무한 늘려야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는 세계거대자본에 의한 국가주권의 제약이 가능한 체제라는 점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자율성, 경쟁성, 신의성, 민족자주성, 문화 정체성 등

이 희생되지 않도록 함에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화에 앞서 '상식이 통하는 민족자주사회 형성'을 위하여 먼저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건, 지진과 살인사건, 전국세도사건 등 줄이어 터진 대형사고 사건이 보여준 정신세계의 황폐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잠든 민족혼을 깨우자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불(神佛)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가깝게 여기며,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

우리는 가치체계가 붕괴된 아노미(Anomie) 현상에서 새로운 이정표로서 민주화 위에 남북해의 8천만 우리 동포가 광복 50년을 맞이하여 세계의 주역이 되도록 잠든 민족혼을 깨우자.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통일성을 회복하며, 정정국토 위에 행복의 삶을 이루는 민주통일정토(民主統一淨土)를 구현해 내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계화를 통하여 지향할 사회적 가치는 소유의 삶이나 물질이 아니라, 무소유(無所有)의 삶이나 정신적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본래 세계적이 아닌 우주적이다. 그것은 우주의 진리를 깨치고, 실천하라고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은 모든게 마음에 담겼고, 마음에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세계는 청정심(淸淨心)이 피어난 하나의 연꽃 즉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것이다.

이 연꽃은 진흙속에서도 더럽혀 지지 않는 청정함과, 꽃이 피며 동시에 열매 맺는 동시인과(同時因果)를 그 특성으로 한다.

우리는 세계일화를 위하여 인류 최고의 문화인 미려세계의 통일종교가 될 선정(禪定)을 날마다 실천하고, 기쁨 속에서 선정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선정을 통하여 깨닫고, 기쁘게 지내며 터잡은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살도로서 식량 등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역경 도제 포교 등 3대사업을 크게 일으키며, 불교 중앙 일간신문 발간과 불교 전국 TV방송 설립 등을 추진하여 통일과 세계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전인류에게 공감할 수 있는 보살도로서 보스니아 체첸 르만도 소말리아 등 냉전(cool war)과 냉평화(cool peace)로 본질이 있는 곳에 화해를 전파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핵전쟁의 위험과 환경과 등을 예방하여 평화로운 한반도 통 동방평화와 함께 서방정도를 달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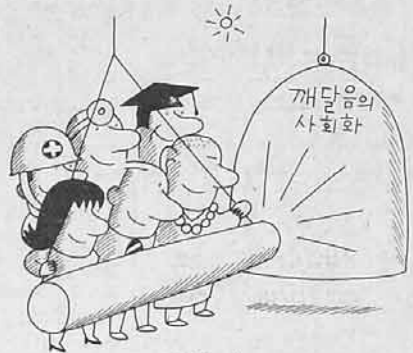
우리 국민들은 세계화의 새해를 맞이하여 주인공이자 창조자로서, 또 세계인으로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불자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관할하며 해답을 제시하는 세계일화 즉 불국정토를 구현해야 하겠다.



고준환 (경기대 법학과 교수)

현대만평

박구원



다함께...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섬 마두라 지역에 햇살을 받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무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친화대세를 논했던 동 큰 사나이. 시술퍼된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견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사·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뀐 일상속에서 지구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